

영광 농업기계 캐릭터 상표등록 획득

전국 최초...트랙터·콤바인·드론 등 3종

안전사고 예방 활용·농업 이미지 변화 기대

영광군이 농업기계 캐릭터(사진)개발 사업을 기획해 농업활용 빈도가 높은 농업기계 트랙터, 콤바인, 드론 3종을 이미지에 '특허청 상표등록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캐릭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창출로 언론매체 외 미디어 산업, 스마트폰 앱, 웹툰, 게임, SNS 활용에 큰 비중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농업기계를 캐릭터로 변

모시켜 4종 20모션으로 이미지화했다.

군은 캐릭터 개발에 있어 농업인 이외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신규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의 딱딱하고 투박한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깨고 농산업 발전 희망의 메시지와 긍정의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특허청에 상표등록 된 농업기계 캐릭터는 K-Farm Agricultural Machinery Character(대한민국 농업기계 캐릭터)라는 타이틀과 랙터, 바인, 드니,



로니라는 캐릭터 명칭이 부여됐다.

캐릭터 4종은 조형물로 제작되어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관 포토존

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캐릭터 개발과 상표등록은 전국 최초이며 무형재산의 자산적 가치를 얻는 성과를 거뒀다”며 “농업발전 도모를 위해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과 더불어 농기계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매진역할로 활용하고자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촌진흥청 주관 2018년 농업기계 교육사업 평가에서 ‘농업기계 캐릭터 개발’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여도와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된 전략 수립 및 추진이 높이 평가돼 농업기계 교육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영광=곽용순 기자



나주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나주시스마트농업연구회'를 발족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 스마트농업연구회 본격 활동

농업환경·인력관리 공유 농가 애로사항 해소

나주시가 농업분야 혁신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 농업 확대 보급을 위한 ‘나주시스마트농업연구회’를 정식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 다목적강당에서 발족식을 개최했다.

스마트 농업은 자동화 설비 및 정보통신기술(사물인터넷, ICT)을 온실, 축사 등에 접목시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 PC를 활용, 작물과 가축 등 생육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는 과학기반 농업 방식이다.

특히 생육 및 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기반,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해 노동력 등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앞서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체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청년, 후계농 등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컨트롤러 자가 제작 과정 ▲농업 ICT 기술교육 등을 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실시했으며 농업인 소모임 활동을 지원, 회원 간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시는 연구회 발족을 통해 스마트농업에서의 환경 예측, 제어 등에 대한 농가 자가 진단 및 해결 능력 향상은 물론, 농업환경,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규 농가들과 기술을 공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회는 발족과 병행해 ‘관비 및 방제기 자가 제작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관수 설비의 간단한 연결을 통한 간이관비 및 방제가 가능한 이동형 관비방제기기를 자가 제작 활용하는 교육으로 소형 펌프를 이용한 기기 활용을 다각화하는 방법을 설명했다./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인구늘리기 지원시책 홍보

장흥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시책을 알리기 위해 홍보 리플릿을 제작,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인구 늘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홍보 리플릿에는 결혼장려금 추가지급기준을 명시했다.

전입세대가 장흥에 조기정착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지원, 공공시설 이용우대 등의 전입세대 지원시책 대상자 완화요건도 포함됐다.

또 신혼부부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 이자, 임대주택 주거비, 주택정비 비용 일부 지원과 출산·양육, 귀농·귀촌 교육 지원사업도 담겨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화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오는 25일까지 참여자 모집

화순군이 오는 27일부터 ‘화순군 사회적경제 기업가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는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군은 사회적경제의 이해, 실무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카데미를 마련했다.

아카데미는 오는 27일, 7월 11일, 7월 25일 총 3차례 열린다. 강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순하늬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는 토론·강의·사례 분석 등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이해를 돕는 이론교육, 지역 문제 해결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할·인사관리·갈등 관리 등 실무교육으로 운영한다.

군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화순=서호령 기자

장흥 안전 보행환경 마련

장흥군이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국비 예산 4억을 확보해 장흥초와 회진명덕초, 용산북지타운 등 보호구역 정비와 필요한 10곳을 조사해 순차적으로 정비했다.

어린이와 노인이 보행할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고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 미끄럼 방지포장, 보호구역 표지판, 횡단보도 등 안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했다.

장흥군이 정비에 나선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18곳, 노인보호구역 3곳 총 21 곳이다.

정종순 군수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성 베리류 드시고 젊어지세요”

섬유소 풍부 블루베리·오디·복분자 본격 수확

장성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의 베리류가 수확철을 맞았다.

19일 군에 따르면 베리류는 필수지방산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뇌 심혈관장애 예방과 노화방지, 항암효과 등이 뛰어난 웰빙 식품이다.

특히 장성군의 베리류는 일교차가 크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돼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 대장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키워주며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지녔다.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 그대로 먹거나 주스나 잼으로 만들어도 좋다.

또한 ‘오디’는 라스베라톨이 100g당 78mg 가량 들어 있는데 이는 포도보다 156배, 땅콩보다는 780배가 높은 수치로, 항암효과가 뛰어나다. 게다가 세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 억제와 간 해독

에도 도움을 준다.

‘복분자’는 기력을 보호하고 피로감을 개선하며,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많아 항노화 효과가 크다. 또한 성기능을 높이고 갱년기 여성의 여성호르몬을 보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복분자는 생으로 먹거나 원액 또는 농축액을 물에 타 음료로 먹는다.

현재, 600여 농가가 120여 ha의 규모의 베리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확량은 250여 톤, 농가 소득은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유두석 군수는 “베리류는 고소득 특산물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고품질의 베리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베리류의 명품화와 전국 베리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6년 베리류 명품화단지 조성사업’ 등에 17억 원의 지원을 확대해 6차 산업보완에 힘쓰고 있다. /장성=전일용 기자



화순군은 최근 동북면 가수3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화순군 제공

화순 동북면 가수 마을회관 준공

주민숙원 사업...69.78㎡ 지상 1층 건물

화순군은 최근 동북면 가수3리 마을회관 준공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마을회관 건립은 가수3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공사를 시작해 면적 69.78㎡의 지상 1층 건물로 지어졌다.

이번 준공식에는 손금주 국회의원회와 최형열 부군수,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마을회관 건립을 축하했다.

최형열 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주민들

의 숙원인 마을회관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집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희주 가수3리 이장은 “마을회관이 오래되고 좁아 불편했는데 이렇게 새로 짓는 데 도움을 주신 군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마을회관을 어르신들과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여가 공간으로 활용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서호령 기자

담양 가사문학면 봄감자 이웃 나눔

담양 가사문학면은 최근 관내 유유지를 활용해 재배한 감자를 수확해 관내 경로당 20개소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나누며 사랑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수확한 감자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정성을 다해 직접 재배

한 농산물이며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정선미 가사문학면장은 “어려운 소외계층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도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클릭! 고향 소식



영광 옥당동부 재배기술 교육

영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88명을 대상으로 ‘옥당동부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옥당동부 자급체계 구축사업은 영광모식임농업의 소 재료인 동부를 안정적으

로 생산 공급해 모식임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종 전까지 재배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작물환경팀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담양 고서면여성자원봉사단 반찬나눔 봉사

담양군 고서면여성자원봉사단은 최근 온정의 손길에 필요한 가정 60세대에 밀반찬을 만들어 이웃사랑을 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봉사단 회원들은 직접 만든 밀반찬을 조순가정, 부자가정, 독

거노인 60세대에 전달했다.

이경호 고서면장은 “바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회장님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흥 어촌일손돕기 구슬땀

장흥군은 최근 회진면 대리 일원에서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어촌일손돕기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해양수산과 직원 16명은 건조된 다시마를 수거하는 일손돕기를 추진했으

며 농촌과 어촌의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탈기 위해 매년 농어촌일손돕기를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길이 부족한 농어가를 방문해 일손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